

Global Market Report

무역사기 유형별 대표사례 및 대응책



CONTENTS

목 차

요 약

I. 유형별 무역사기 현황

II. 유형별 무역사기 특징 및 대표사례

1. 이메일 해킹
2. 선적
3. 전자상거래
4. 서류위조
5. 수수료·로열티·로비자금 등 금품사취
6. 결제
7. 기타

III.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책

요 약

- 최근 3년간 발생한 무역사기 사례 중 최다 발생 유형은 이메일 해킹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인지한 사례 중 이메일 해킹, 선적, 전자상거래, 로열티·수수료 등 금품사취, 서류위조, 결제 순으로 많이 발생
- 아프리카, 중동은 무역사기 요주의 지역 외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걸쳐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각종 지능화된 무역사기 사례 및 선진국 바이어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및 바이어의 국적으로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양
- 이메일 해킹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번호를 변경한 인보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계약서 상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변경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메일 외 유선,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
- 선적 관련 사기 유형은 현지 법 및 절차를 악용해 선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허위 상품을 선적한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
 - 낮은 가격이나 물량확보가 어려운 물품의 대량 선적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무역사기 사례는 최근 급증세이며, 알리바바, 트레이드키, 바이코리아, EC21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입금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 등을 위조하는 서류위조 관련 무역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금 결제 및 선적 시 사전 서류 확인 절차 필요
- 수수료, 로열티, 로비자금 등 금품사취 건은 중동, 동남아,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국제기구,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에이전트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
- 무역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업체 정보 확인은 필수이며 KOTRA 해외수입업체 확인 무료서비스 등을 활용할 것
- 무역사기 발생 시에는 송금 후 1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내 송금은 행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경찰 신고

I. 유형별 무역사기 현황

<최근 3년간 유형별 무역사기 발생 현황>

유형	건수	주요 무역사기 발생 국가 (사기 접수건수)
이메일 해킹	58	헝가리(15), 미국(9), 중국(6), 독일(3)
선적	17	태국(4), 영국(3), 파키스탄(3), 중국(2), 인도(2),
전자상거래	16	중국(4), 헝가리(2), 독일(2), 러시아(2), 호주(2)
금품사취 (수수료, 로비자금 등)	13	이라크(4), 태국(2), 사우디아라비아(2), 중국(1), 탄자니아(1)
서류위조	12	태국(2), 독일(2), 러시아(2), 남아프리카공화국(1)
결제	7	중국(1), 가나(1), 방글라데시(1), 태국(1), 폴란드(1)
기타	16	중국(4), 독일(4), 남아프리카공화국(2), 미국(2), 캄보디아(1)

* 주 : 이 수치는 2017년 10월 기준 과거 3년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 및 보고된 사례 기준임

- 최근 3년간 발생한 무역사기 사례 중 최다 발생 유형은 이메일 해킹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인지한 사례 중 이메일 해킹, 선적, 전자상거래, 로열티·수수료 등 금품사취, 서류위조, 결제 순으로 많이 발생
- 최근에는 각 무역사기 유형이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EU 등 선진국 포함 전 세계에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국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바이어의 신용을 파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이메일 해킹,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무역사기 건의 경우 바이어, 셀러, 결제은행의 소재지가 모두 달라 3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연관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수수료, 로비자금 등의 금품사취 또는 서류위조는 서남아, 동남아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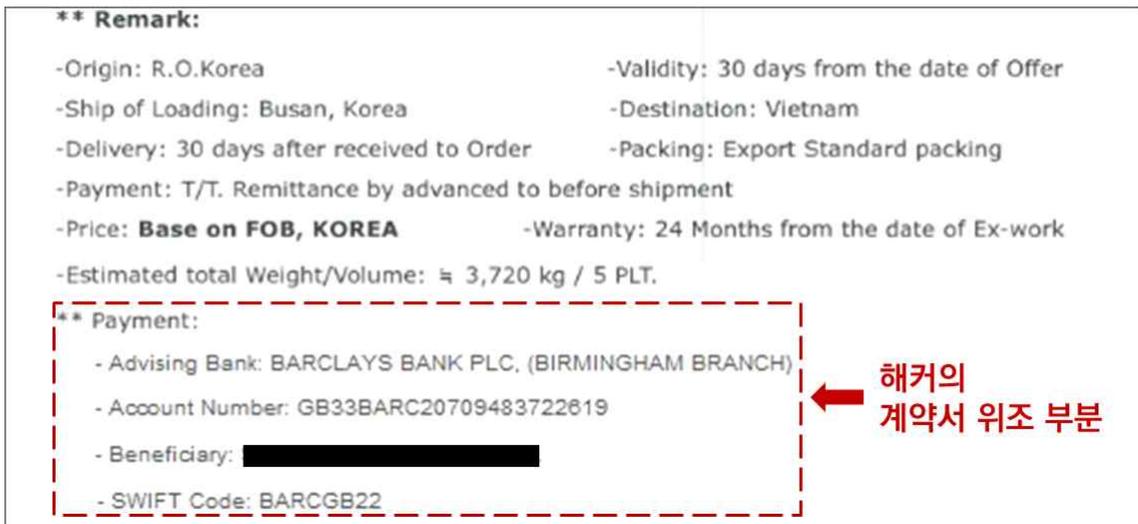
II. 유형별 무역사기 수법 및 주요사례

1 이메일 해킹

①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무역 당사자 간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제 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송부하고 결제대금을 사취 및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며 스캠(Scam)이라고도 함
 - 무역사기 유형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사례가 KOTRA 무역관에 접수되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라 최근 발생빈도가 급증
 - 북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이메일 해킹 수법은 정교해져, 실제 셀러가 보낸 견적서 PDF 문서 중 계좌번호 부분만을 변경하여 재송부하는 수법으로 해당 견적서의 위조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해커가 송부한 실제 위조 PDF 문서>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 이메일 해킹은 비슷한 수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관련 피해 사례를 숙지하고 거래 시 주의 필요
 - 유형1: 미묘하게 다른 수출업자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한 계좌를 보내는 경우 사례) susanlee@gmail.com → susnalee@gmail.com

- 유형2: Gmail, Yahoo, Hotmail 등의 계정을 이용해 수출업자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만든 경우
사례) kyle@koreaseafood.com → kyle.koreaseafood@gmail.com
- 유형3: 계정 해킹을 통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변경 계좌를 보내는 수법. 양측의 이메일을 중간에서 삭제한 후 해당계정으로 다시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으로 근래 해커들의 기술이 정교화 되면서 증가하고 있음.

<해커들이 사용하는 주요 표현들>

- * 감사로 기존 계좌로 송금할 수 없으나 새로운 중국 계좌로 송금하겠다
- * 세금 문제로 인해 계좌를 변경하겠다
- * (중국 업체의 경우)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홍콩은행계좌로 변경하겠다

- (예방) 계약 시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계좌 변경 통보 시 주의
 - 대금 지급 조건(Sales 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무역거래 양사 간 거래정보 수정·변경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조항에 따라 이메일만으로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
 - 계좌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이메일 수신 시 유선, 팩스, 영상회의 등 다중확인
 - 대부분의 이메일 해킹 사기 사건은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영문 이메일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발생
 - 타 이메일 주소로 계좌 변경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경우에도 계정이 해킹되어 있는 경우, 해커에 의해 담당자의 확인 이메일을 삭제하고 대신 답변을 보내는 방식으로 담당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
 - 유선확인 시에도 해커가 직접 전화를 받아 계좌변경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바이어를 안심시켜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있어 이메일, 유선 외 팩스, 영상회의 등의 다중확인 필요
 - 거래처와 연락하는 경우 회사 자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것
 - gmail.com, hotmail.com 등의 이메일 계정은 알아보기 어렵게 미묘하게 철자를 바꾸어 쉽게 유사 계정 생성이 가능하므로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업무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을 철저히 하며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도 수시로 변경해야 함

- (대응) 계좌이체 후 1~2일이 골든타임으로 이 기간 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현지 및 국내 경찰에 신고 접수할 것
 - 국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현지 및 결제은행 소재지 등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신고
 - 바이어 또는 수출기업의 국적, 거래지역, 결제 은행에 따라 제 3국이 관여될 수 있으므로 현지뿐만 아니라 제 3국에도 신고접수 고려하며 국내 경찰에서도 공조수사 진행
 - 신고 시 인보이스 사본, 계좌변경 요청 이메일 사본, 입금증빙 등 관련 자료 확보
 - 출금 은행계좌 지급정지 요청
 - 은행계좌 지급정지는 자금을 송금한 한국 측 은행의 공문을 통해 요청이 가능하나 현지법 및 절차로 인해 지급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송금은행을 통해 문의할 것

② 대표사례

[1] 피해기업의 확인문의 이메일까지 지속적으로 조작한 치밀한 해커

- 발생지역 : 독일
- 발생시기 : 2016년 3월
- 피해금액 : 2,000유로
- 내용

한국 제조업체 M사는 2016년 2월 독일 K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자 연락했다. K사와 이메일 및 유선으로 교신하던 중, 견적 및 결제 대금 단계에서 K사 담당자가 독일 현지 계좌 정보가 아닌 영국 런던 W은행 계좌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M사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이메일 변경관련 요청을 이메일 해킹으로 의심해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에 정확한 계좌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독일 K사에 문의한 결과, '당사는 독일 은행 계좌만을 가지고 있으며, 주문확인서 및 PI 하단에 정확한 계좌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해야만 물품 선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무역관은 동 사실을 한국 업체에 전달하며 우선 결제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결제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M사의 해커가 독일 K사 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 확인메일을 보낸 것을 믿고 런던 계좌로 약 2,000유로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다. M사 직원은 K사에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선적할 것을 요청했으나 K사 측에서는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니 다시 확인해보라'고 회신했다.

무역관에서 기존 M사와 K사간의 메일 교신 내용을 추적하자, K사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이메일을 해킹하여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M사는 K사의 기존 메일로 꾸준히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K사를 사칭한 인물이 이를 K사의 실제 담당자가 이메일을 열람하기 전에 삭제하여 K사 담당자는 해당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담당자를 참조해 이메일을 보냈어도 손해배상은 불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피해금액 : 15,580달러
- 내용

한국기업 J사는 2015년부터 중국 선전 소재 A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 있었다. 선불 결제로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을 진행해오던 중, 2017년 3월 15일에 J사는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로부터 미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017년 3월 27일, J사는 해당 계좌로 송금을 하려 했으나 수신자명 불일치로 송금이 실패해 A사 연락 이메일과 연구원 앞으로 수신 참조하여 올바른 계좌를 재차 문의했다. 그 후, 또 다른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받은 J사는 2017년 4월 6일 다시 받은 계좌로 송금 했으나 역시 수신자명 불일치로 총 세 차례 송금에 실패했다. 송금 실패 후, J사는 송금 가능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에 적힌 세 번째 은행계좌로 2017년 4월 27일 선적 전 대금인 미화 15,580달러(총 대금의 20%)를 송금했다.

송금 후, J사는 중국 A사에 제품 선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2017년 5월 4일, J사는 세 차례 계좌를 확인하고자 보냈던 이메일의 수신 참조인이었던 A사의 연구원으로부터 송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J사는 3월에 받았던 계좌변경 알림 메일과 그동안 왕래한 이메일 내용을 A사에 보냈다. 하지만 중국 A사는 이 메일 주소는 A사의 이메일이 아니며 J사가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 같으며 전적인 책임은 모두 J사에 있으므로 제품을 선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J사는 실제 A사 담당자가 모든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해당 이메일을 수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제품 선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계좌를 동결했지만 432달러만 남기고 인출된 사건

- 발생지역 : 헝가리
- 발생시기 : 2016년 1월
- 피해금액 : 46,187달러
- 내용

미국 소재 바이어 L사는 한국기업 D사에게 물품 대금으로 미화 46,187달러(원화 약 5천 1백만 원)를 2015년 12월 16일에 입금했다.

그러나 D사는 납품 대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급히 내용을 파악한 결과, 인터넷 해킹을 통해 해커가 입금계좌번호 변경 요청 이메일을 L사에 보냈고 대금이 헝가리에 소재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D사는 이 건이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고, 2016년 1월 13일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으로 이 건을 알렸으며, 헝가리 경찰 당국으로 신고했다. 헝가리 경찰 측의 협조로 당일 해당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

헝가리 경찰 당국의 수사결과, 해당 계좌는 사이프러스(Cyprus) 국적의 인물이며, 계좌 내 대부분 금액은 홍콩 IP주소를 통해 홍콩에 소재한 은행으로 이체됨을 확인했다.

헝가리 경찰당국에서는 2016년 3월 해당계좌에 대한 잔고가 미화 432달러임을 알려왔고, 해당 금액은 한국기업 D사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이메일 해킹 피해를 상호 합의를 통해 분담한 바이어와 셀러

- 발생지역 : 미국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피해금액 : 150,000달러
- 내용

국내업체 M사는 결제대금 미수금 건으로 바이어 G사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G사는 M사가 통보한 변경된 계좌로 지난 3개월 동안 결제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G사의 위와 같은 반응에 M사는 자사의 계좌정보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회신했으며 대금결제자인 G사를 통해서 사건 경위 파악을 시작했다. 이후 양측은 쌍방간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는데 실패했고 확인 없이 대금 결제를 진행한 G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M사는 소송을 준비했다.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의 도움으로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M사는 G사를 대금지급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M사는 이제까지 분쟁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해온 바이어 G사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발생할 향후 비즈니스 기회 상실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분쟁 및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M사는 변호사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대금의 50%만 지급받는 것으로 G사와 상호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5] 글자 하나 차이로 날릴 뻔한 5만 달러

- 발생지역 : 미국
- 발생시기 : 2016년 11월
- 피해금액 : 50,000달러
- 내용

오일가스 기자재 생산 업체인 국내 A사는 미국에 위치한 바이어와의 거래를 정산하고자 미화 약 50,000달러를 송금했다. A사는 송금할 계좌 번호를 바이어 측에 요청하고 이메일로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 전액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은 그간 A사와 바이어 간의 교신 내역을 해킹한 해커가 자신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보낸 이메일로 밝혀졌다. 해커는 바이어의 기존 이메일 주소에서 알파벳 하나만 수정한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위 이메일 계정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한 A사는 의심 없이 기업은행을 통하여 해커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며칠 후, 아직 송금을 받지 못했다는 바이어의 연락을 받은 A사는 확인 과정에서 당사가 해커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업은행의 도움으로 송금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다행히 해당 계좌에서 무역대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A사는 신속히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6] 이메일 해킹 피해 책임은 모호

- 발생지역 : 이탈리아
- 발생시기 : 2017년 7월
- 피해금액 : 88,000달러
- 내용

경기도에 위치한 수출 제조기업 S사는 이탈리아 업체 A사에 2016년 9월 이메일로 송부 받은 인보이스에 따라 제품을 선적했다. 그러나 2017년 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S사는 이탈리아 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 A사가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탈리아 바이어 A사는 국내 기업 S사로부터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변경된 계좌로 이미 무역대금을 송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어 측에서는 이미 업체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며, 이는 양자의 책임이 모호한 사건으로 해결에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7] 무역사기,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 예방

- 발생지역 : 이탈리아
- 발생시기 : 2017년 3월
- 내용

2017년 3월 KOTRA 밀라노 무역관은 지방 무역관으로부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에서 발송한 공문의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수령하였다.

이는 지방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요청으로, 동 업체는 아프리카 지역의 공공조달 품목에 선정되어 제품을 선적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금은 자국의 은행시스템 문제로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허가 하에 이탈리아 계좌에서 송금을 하겠다는 메일을 수령하였다.

이에 국내기업은 의구심을 가지고 동봉된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공문 진위여부를 KOTRA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밀라노 무역관에서 해당 부처와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회신해, 무역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8] 10년 비즈니스 관계도 끝내버린 이메일 해킹 사기

□ 발생지역 : 호주

□ 발생시기 : 2016년 말

□ 내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K사는 호주의 대형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J사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말, K사는 호주 바이어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이를 문의를 하였으며, J사 담당자는 국내기업이 급하게 입금을 요청한 새로운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다고 이야기했다. 국내기업은 당황하였으나 먼저 바이어가 받았다고 하는 메일 내용을 요청하였다.

전달받은 메일에는 국내기업에 급한 문제가 생겨 지금 보내는 새로운 계좌로 빨리 대금을 입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국내기업과 돈독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바이어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즉시 대금을 입금했다.

국내기업은 새롭게 요청한 계좌 정보가 한국이 아닌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메일주소 역시 국내기업 담당자의 것과 매우 유사지만 스펠링 한두 글자가 다르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금이 엉뚱한 계좌로 입금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이어는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여 결제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이후, 2~3개월가량 국내기업과 바이어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은 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가능한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무역관에서는 호주 소재의 현지 및 교민 변호사 리스트를 전달, 국내기업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교민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국내기업은 2017년 2월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풀어나갔으며 지난 2017년 7월 7일, 미화 60,000달러 이상의 결제대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나 J사와 거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였다.

[9] 이메일 및 우편 이중 송부로도 막을 수 없었던 이메일 해킹 사례

- 발생지역 : 미국
- 발생시기 : 2017년 2월
- 피해금액 : 100,000달러
- 내용

철강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무역업체 S사는 2017년 2월 초 미국 소재의 업체 I사에 약 1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물품 대금 수취를 위해 I사에 인보이스(invoice)를 송부했다. 하드카피 원본 인보이스는 DHL로 송부하고, 스캔본을 첨부파일로 하여 이메일로도 송부했다.

이 사이에,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수정하여, 인보이스 상에 명시되어 있던 국내 소재 은행 정보를 타 국가에 있는 은행으로 변경했다. 해커는 I사에 은행정보가 변경된 첨부파일을 송부했고, I사는 해당 은행으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I사는 이미 송금을 완료했으며 S사의 보안 부주의로 인해 S사 서버 상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송금을 거부하였다. S사는 한국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피해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S사의 피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다.

S사는 I사가 우편으로 받은 원본 인보이스와 이메일로 보내진 스캔 본 정보를 대조하지 않은 점, 한국 소재 은행이 타 국가 은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S사와 아무런 확인 없이 결제를 진행한 점은 명백한 I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I사와 협의를 통해 대금 중 일부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했다.

S사는 이어 KOTRA 시카고 무역관에 현지 법률 조언을 요청했으며 무역관에서는 지역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 등을 즉시 접촉하여 자문을 구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맡았던 미국 변호사는 납품계약서 등에 결제(payment) 관련 조항이 얼마나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 이슈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한지가 쟁점이라고 하며,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모든 결과는 계약서에 기반한다고 설명하였다.

무역관은 이러한 내용과 예상되는 소송비용 등을 S사에 바로 안내하였으며, S사는 일단은 I사가 요청한 조사가 진척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해당 건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10]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 이메일을 동시에 해킹한 치밀한 해커

- 발생지역 : 그리스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피해금액 : 19,252달러
- 내용

국내 네일아트 제품 생산업체 E사와 그리스 바이어의 이메일을 동시에 해킹하여 물품대금을 갈취한 해킹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선적 전후 분납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해커가 바이어의 이메일로 선적 후 일시납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E사가 사전 송금 없이 선적하도록 유도하고 바이어에게는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업체 E사는 '17년 2월 그리스 S사와 네일아트 제품 19,252달러를 선금 50%, 선적 후 50% 지불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3월 경 E사는 바이어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선금 지불이 어려우니 선적 후에 총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변경 요청을 받았으며 국내기업도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국내기업은 '17년 5월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로 물품을 선적했다.

6월 경 E사는 바이어로부터,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니 통관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E사는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 결과 E사는 바이어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커가 바이어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임의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커는 E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바이어에게 E사의 내부 사정으로 한국 소재 은행이 아닌 해외 은행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계좌 변경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어는 변경된 해외 계좌로 2월 계약 체결 후 총 대금의 50%인 9,626달러의 예약금과 선적 이후 6월에 잔액 9,626달러를 송금했다.

E사는 바이어가 당초 계약서에 기입된 계좌가 아닌 해외 계좌로 송금한 점 및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선금 조항이 있음에도 선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했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2

선적

1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계약체결 후 선금 또는 대금 전액을 송금했으나 선적을 하지 않고 잠적
 - 각종 현지 법 및 절차를 악용하고 현지 공무원 또는 은행원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선적을 회피하는 경우 다수 발생
 - 포장박스 안에 쓰레기를 넣어 선적하거나 컨테이너 내 절반만 해당 상품으로 선적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채워 바이어가 선적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송금을 유도하기도 함
 - 잠적하기 전 위조 선적서류를 송부해 바이어가 무역사기 건임을 인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
- (예방) 과도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수입업체는 주의할 것
 - 물량이 부족해 구하기 힘든 제품의 대량 선적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주의
 - 발주 전 업체 정보 및 신용도 조사는 필수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문서를 발급할 것
 - 지인의 소개이거나 매우 급한 수입 건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역사기 피해 가능성 증가
 - 국제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한다거나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하겠다는 제안에 속아 급하게 선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결제 관련하여 L/C 거래를 하거나 선금 지급비율을 낮출 것
 - 계약서 작성 시에는 L/C 날짜를 선적 및 검수기간까지 고려하여 지정
 - 잘못된 제품이 선적되어 거래대금을 송금하지 않아야 했으나 L/C만기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아야하는 사례가 있었음. 무역사기 건은 한번 송금되면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주의
 - 샘플 테스트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큰 금액의 수입 건은 실사 진행
 - 샘플 검수를 통과한 후에도 선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금액이 큰 계약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해 선적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 지정 검사기관 또는 검수인을 통해 선적 여부와 제품상태 점검
-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송부 받은 선적 서류를 해당국 서류 발급기관, 현지 전문가, KOTRA 해외무역관 등에 의뢰하여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송금할 것
- (대응) 선사 소재지 관할 당국 경찰 신고 및 물품 반송·손해배상 관련 소송 진행
 - 선적 서류 위조 등 선적 관련 무역사기 건의 책임은 선사에게 있으므로 수출기업 소재 관할 당국뿐만 아니라 선사 소재지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것
 - 선적 받은 제품이 계약한 제품과 다르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송 진행
 - 실제로 받은 제품이 의뢰한 제품과 다르다는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가능 시 물품 반송 및 손해배상을 요구(대금반환, 통관비, 운송비 포함)할 수 있음
 - 선적관련 서류 및 선적된 물품을 사진을 찍어 보관할 것
 - KOTRA 무역관 고문 변호사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하여 소송 진행

2 대표사례

[1]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도 100% 선불은 주의해야

- 발생지역 : 네덜란드
- 발생시기 : 2016년 10월
- 피해금액 : 5,150유로
- 내용

H사는 동물원 개장을 위해 해외에서 조류 및 포유류의 수입처를 찾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조류 및 포유류 공급처를 찾게 되었다. 해당 업체를 통해, 인보이스를 접수했으며, 구하기 어려운 조류 및 포유류 종인 것을 고려하여 100% 선불 지급 조건을 의심하지 않고 전액 입금하였다.

그러나 대금 지급 후에 해당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SNS 상에만 존재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

H사는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현지 경찰서에 무역사기로 신고했으며 무역관 담당자가 현지 주소지로 방문했으나 업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선적을 미루다 환불까지 약속한 후 잠적한 수출업체

- 발생지역 : 파키스탄
- 발생시기 : 2015년 8월
- 피해금액 : 4,320달러
- 내용

라임스톤, 샌드스톤 등 석재 전문 수입업체인 국내업체 B사는 기존에 인도, 파키스탄 업체와 거래해왔다. 2015년 파키스탄 업체 V사와 이메일을 통해 처음 연락한 이후, 가격 및 선적 관련 조건이 충족되어 주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B사는 선적 전에 품질 확인을 위해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파키스탄 업체 담당자를 만나 면담을 가졌으며 샘플 테스트 이후 계약금(4,320달러)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계약서 상 도착 예정일을 훌쩍 넘겨서도 제품이 선적되지 않았으며 파키스탄 업체는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업무를 지연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난관에 빠진 B사는 KOTRA 카라치 무역관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카라치무역관은 현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파키스탄 업체 V사 CEO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파악했다. 무역관 담당자는 V사 CEO와 면담을 시행했으며 국내업체 B사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V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다.

V사는 의외로 흔쾌히 환불 요청을 수락했으며 관련 양식에 서명하여 수일 내 회신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역관에서 재차 연락한 결과 V사 직원은 현재 CEO가 해외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을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전화 및 이메일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V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업체 소재지를 수소문했으나 이미 기존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결국 B사는 어떤 환불도 받지 못했다. 환불 수락은 잠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라고 계약서 작성도 생략

발생지역 : 미국

발생시기 : 2016년 상반기

피해금액 : 140,000달러

내용

국내기업 K사는 미국 뉴저지 주에 소재한 A사로부터 원료를 구입해 유럽으로 선적한 후 유럽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K사는 한국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미국업체 A사를 알게 되어 거래를 추진했다. 처음 몇 번은 제품 선적에 문제가 없었고 이에 만족한 K사는 규모를 늘려 재주문했다. 그러나 재주문 후 선금을 받은 뒤 제품 선적이 미뤄지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 거래는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K사가 A사에게 총 20여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14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현재까지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A사가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이미 지급된 14만 여만 달러의 선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K사는 지인의 소개로 A사를 알게 되어서 A사를 믿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문서(PO)도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소송 진행 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샘플과 전혀 다른 제품 선적

발생지역 : 중국

발생시기 : 2017년 9월

피해금액 : 9,100달러

내용

국내기업 L사는 중국 소재 A사로부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선적된 제품의 검품 시 의뢰한 샘플과는 다른 제품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A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담당자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해당 선적 건과 관련하여 L사는 고의가 아닌 100% 과실이라는 중국 측의 이메일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L사는 급하게 거래를 진행한 탓에 근거로 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대금지불은 T/T로 처리했으며 및 통관비용, 운송비를 다 지불한 상태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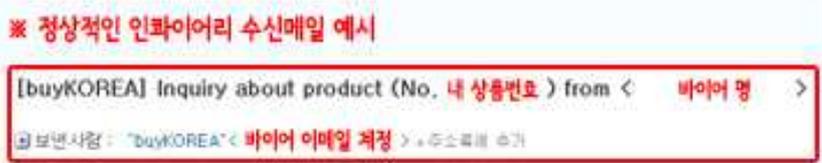
전자상거래

1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업자 또는 바이어를 사칭하여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수법이 지능화되어가며 급증하고 있는 무역사기 유형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거래는 인터넷으로 접촉하여 제품에 대한 인콰이어리를 진행하며 이메일 및 2~3통의 전화 후 구매를 확정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무역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바이어 및 셀러 모두를 대상으로 발생
 - (수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유명회사를 등록하고 허위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물량확보가 어려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이고 무역대금을 받아 잠적
 - (수출1) 외국 바이어라고 속여 접근하고 대량 샘플을 요구해 갈취하거나 수수료, 공증비 분담을 요구해 금품을 사취
 - (수출2)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발송된 인콰이어리처럼 위장하여 국내업체에 메일을 보낸 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2차 무역사기의 수단이 됨
- (예방)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거래처는 2차 검증 필요
 - 인터넷으로 처음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철저하게 검증할 것
 - 최근에는 무역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져,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재무제표 등을 증빙하거나 비슷한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증빙서류 및 해당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만으로 업체를 검증할 수 없어 2차 확인 절차가 필요함
 - 상시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기반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유료라도 업체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 이메일 외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연락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

-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업체 확인 체크 포인트
 - ① **업체명 및 생산·유통 품목 리스트**
 -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업체명에 포함되어 있는가
 -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리스트 목록에서 해당 제품이 주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과 전혀 관계없는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가
 - ② **품질 증명서 (Management Certification)**
 -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무역사기의 가장 큰 위험중 하나는 실제 전자상거래상에 제시된 상품보다 크게 질이 떨어지거나 묘사된 상품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확인
 - 각 제품 유형(식품, 전자제품, 의류, 유아용품, 화장품 등)에 따라 다양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이 존재하므로 각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이를 확인
 - ③ **유사 또는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타 기업의 품질증명서 확인**
 - 해당 제품 생산 및 납품 시 제시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또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타 생산 또는 유통업체와 같은 증명서를 제시하는지 볼 것
 - ④ **대표자명 (Legal Representative/CEO)**
 - 대표자 서명이 인보이스 및 거래약정서에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는가
 - 회사 직인이 대표자 서명과 함께 날인되어 있는가
 - ⑤ **자본금 (Registered Capital)**
 - 알리바바(Alibaba)등 주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각 등록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본금이 적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주의할 것
 - 자본금은 각 생산규모를 나타내므로 자본금이 작은 업체가 지나치게 큰 물량을 납품하겠다고 하는 경우 및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주의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수출업체에 견적서 요청, 주문서 발송 등 미끼 이메일을 뿌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악성코드가 숨겨진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무역사기 관련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제목에 관심 품목과 제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분명하지 않은 내용의 이메일의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buyKOREA 인콰이어리 예시>



자료원 : buykorea.org

- (대응) 전자상거래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진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연 경우 2차 무역사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최우선
 -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악성코드 등 삭제하도록 하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여 추가피해 방지
 - 무역대금 송금 시 즉시 국내 송금은행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국내 사이버안전국, 현지 경찰 및 결제은행 소재지 등 경찰 신고
 - 사이버 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신고
 - 전자상거래 거래 시 주고받은 이메일 및 송부 받은 각종 서류를 저장하여 증거자료 확보
 - 각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신고 제도 활용하여 피해 확산 방지

* Buykorea 스팸 인콰이어리 신고제도

- 신고방법 : 받은 인콰이어리 상단 [스팸신고] 버튼 클릭
- 신고건수 2회 초과되는 바이어는 인콰이어리 발송 기능 제한
- 인콰이어리 발송 제한 '요주의 바이어 목록' 확인

<buyKOREA 실제 무역사기 인콰이어리 송부 사례>

-----Original Message-----

From: "Nexen Europe Group"<nexengroups@hotmail.com>
To: "[buyKOREA.org]"
Cc:
Sent: 2016-04-05 (화) 10:38:53
Subject: Re: [buyKOREA] [RE] NATURAL CASE / Confirm PO

Hello,

Thanks for your reply to our inquiry. We are interested in purchasing products from your company. Find attached of our purchase order.

Kindly quote us best price and send us proforma invoice asap, so that we can proceed with the necessary payment. We need this Order in United States.

kindly confirm the PO and send PI asap 주문을 유도하는 첨부파일 **purchase order.zip** 으로 pc에 바이러스를 배포함

Best regards,

Mr. Lucas
Purchasing Manager
Nexen Europe Group
Koningin Astridlaan 59, bus 12 1780 Wemmel, Belgium.
Phone: 32-2-461-0233
FAX: 32-2-461-0222

Subject : RE: 바이코리아 피싱 사례 from

Hello,

Thanks for the response to our message. please check the attached Purchase Order to see the products and quantities the company needs and quote your best Sort By lowest price. accordingly.

Kindly unlock the link with your email and password you will go through to know more about our required product details and specification.. **피싱사이트 유도** **개인정보 유출 유도**

Open the webpage www.downloads.tradesample.net and log in with your valid email address and password, which would automatically redirect you to our PO page where you will see the specific brand, drawing and description of the product we want your company to supply to us.

Secondly the proactive security filtering system / Order sample is designed to protect your privacy and ours.

We expect to hear from you shortly to enable us offset with the purchase arrangement / agreement once the Sort By lowest price is competitive and we get your assurance on the quality of the products. Your early reply is highly appreciated

Regards,

Evans Carl
Purchase Manager
Tengelmann Group
GERMANY tengelmanngroup.tradeholding@yandex.com
Tel.: 02 08/3777-0|Fax:02 08/3777-4605

자료원 : buykorea.org

2 대표사례

[1]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조심

- 발생지역 : 폴란드
- 발생시기 : 2016년 9월
- 내용

글로벌 브랜드 식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E사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폴란드 업체로부터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프랑스산 고급 식품을 E사에 납품하겠다는 오퍼를 받았다. 대금결제 전까지 폴란드 업체와 거의 매일 통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으며 국내업체 E사는 폴란드 업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E사는 무역대금 완납 후에 물건의 선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폴란드 업체에 국제전화를 걸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일 후 폴란드 업체는 이메일을 보내 해운회사의 선적 계획 확인증과 함께 우크라이나 해운회사를 통해 물건이 선적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E사는 왜 폴란드 업체가 굳이 우크라이나 소재 해운회사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역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해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으로 문의해왔다.

확인 결과, 해당 폴란드 업체는 개인회사 형태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긴 했으나 확인된 회사 전화번호는 회사 소재지의 지역 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번호였고, 이 점이 수상해 직접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은 회사는 해당 폴란드 업체가 아닌 개인회계 사무실 전화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사와 그동안 연락을 해오던 폴란드 업체 담당자 역시 해당 개인회계 사무실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후 폴란드 업체 담당자와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계속해서 응답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선적회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명백한 무역사기 사건으로 밝혀졌다.

[2] 전자상거래로 첫 거래한 공급자에 전액 선금을 지급한 업체

- 발생지역 : 헝가리
- 발생시기 : 2016년 9월
- 피해금액 : 50,803유로
- 내용

주로 외국 화장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유통하는 업체 B사는 최근 인기가 많아 물량 확보가 어려운 프랑스산 화장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헝가리 공급자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헝가리 공급자는 여타 구매자들의 연락이 많다고 하며 바로 선입금을 해줘야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음이 급해진 B사는 2016년 7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50,803유로(약 미화 60,964달러)를 입금했으며, 해당 헝가리 기업에서는 입금 확인과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6년 8월 2일 해당기업은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을 방문했고 무역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무역사기 건으로 해당 헝가리 공급자를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즉시 해당계좌를 동결했으나 송금한 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경찰에서는 이후 노르웨이 등에서도 해당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이 다른 기업에게도 무역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계좌주는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로 도주했으며, 경찰에서는 해당인물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기 위한 국제절차를 진행 중이다.

[3] 가짜 웹사이트에 속은 바이어

- 발생지역 : 덴마크
- 발생시기 : 2016년 8월
- 피해금액 : 14,700유로
- 내용

2016년 야심차게 회사를 설립한 바이어 A사는 사기 웹사이트 www.D사.net를 통해 지난 3년 동안(2014~2106) 국내기업 D사의 무역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Vicky Kwong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마켓 테스트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동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Vicky Kwong 뿐만 아니라 D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2명의 한국인을 만나서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좋아, A사는 현지 대형잡화점 체인인 B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Vicky Kwong에게 제품 30,000개를 주문, 14,700유로를 그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자 A사는 Vicky Kwong을 컨택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니 추가로 금액을 송금하면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뻔뻔한 답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D사 담당자에 연락한 결과, Vicky Kwong은 몇 년 전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컨택한 사람으로 D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피해와는 별개로 www.D사.net이 별도의 권한이 없으면 폐쇄가 불가능해 아직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타 국내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

4

서류위조

①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무역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각종 선적 서류, 품질보증서 등 위조
 - 전형적으로 송금증 등 은행 발행 서류를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선적된 제품을 사취하는 무역사기 발생
 - 이메일 해킹 사기 시 첨부된 인보이스 중 계좌번호만을 변경하여 이메일로 재 송부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조 기술이 지능화·정교화 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및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주문서를 송부하는 등 접대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예방) 서류 관련 감수 및 자문을 활용하고 해당 업체에 유선 전화 등으로 확인
 - 최근 위조 서류는 판별이 어려워 스펠링, 직인, 회사명, 회사 로고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위조서류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 또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감수를 받는 것을 권고
 - KOTRA 무역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서류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할 것
 - 각 국의 해당 서류 발행기관을 통해서도 위조 여부 확인가능한 경우가 있음
 - 현지 기업의 장기간 거래를 했더라도, 송금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중요 서류 공유 금지. 부득이한 경우 중요 정보는 삭제하고 전달할 것

<위조서류 사례>



사례 1: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발급 세금명세서 위조서류
 * 마크와 서명이 흐릿하나 글자는 매우 선명함



사례2: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등록청(CIPRO) 회사등록정보증 위조서류
 * 로고는 흐릿하나 글자는 매우 선명함



사례 3: 필리핀 소재 은행 입금 영수증 위조서류
 * Citi Bank, Maybank, RCBC등 필리핀 현지 은행의 입금 영수증이 주로 위조됨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마닐라 무역관

2 대표사례

[1] 위조 선적서류 송부 후 대금을 받아 잠적한 터키 수출업체

- 발생지역 : 터키
- 발생시기 : 2015년 6월
- 피해금액 : 14,812달러
- 내용

국내기업 S사는 태국 소재 중개업자로부터 식품원재료 닭발의 공급제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구매대금을 중개업자가 지정한 터키 K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수일 후 태국 소재 업체는 선적을 완료했다며 관련 서류를 송부해왔다.

선적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S사는 수일이 지나도 선적이 되지 않자 실제 선적지인 브라질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혀 선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선적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소재 중개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터키 소재 업체가 이들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S사는 긴급히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 연락하여 기송금한 대금을 수취한 K은행에 지급정지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국내 송금은행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은행 간 전문으로 지불 보류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K은행은 이미 대금이 지정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회신했다.

이후, 지정계좌의 계좌주에 대한 정보요청 및 환불요청을 KOTRA 이스탄불 무역관과 국내 송금은행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결국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계좌주의 정보를 받지 못했으며 무역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2] 위조 서류를 들키고도 뻔뻔한 사기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7년 6월
- 피해금액 : 15,061달러
- 내용

한국기업 H사는 2017년 3월 광둥성 포산시 소재 A사와 2회에 걸쳐 제품수입 계약(1차: 30,580.48달러, 2차: 39,239.30달러)을 체결하고, 각각에 대한 선금 총 15,061달러(30%)를 지불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른 납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계약 후 한 달이 경과해도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H사가 계속해서 독촉하자 A사는 선적계획이 변경되었다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선하증권(B/L) 사본을 송부 받았다.

H사는 선하증권을 믿고 선적을 기다렸으나 다시 A사가 연락을 회피하자 해당 선하증권의 진위여부 확인을 무역관에 요청하였다. 무역관 확인결과, 송부 받은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었고 H사는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선금 15,061달러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일본에서 발송되어야 하는 제품이 부족해 준비하고 있으며 선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주장만 지속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3] 위조공문 확인으로 무역사기 예방

- 발생지역 : 이탈리아
- 발생시기 : 2017년 3월
- 내용

2017년 3월 KOTRA 밀라노 무역관은 한 업체로부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에서 발송한 공문의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받았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공공조달 품목에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선정되어 제품을 아프리카로 선적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금은 자국의 은행시스템 문제로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허가 하에 이탈리아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공문을 수신했다.

이에 A사는 무역사기를 의심하고 동봉된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공문 진위여부를 KOTRA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밀라노 무역관에서 해당 부처와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4] 실제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와 위조한 송금증을 함께 송부한 사기관

- 발생지역 : 필리핀
- 발생시기 : 2016년
- 피해금액 : 3,000만원
- 내용

필리핀 현지 바이어라고 소개한 한국인은 한국기업 A사에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국내기업에 연락을 해왔다. 필리핀 바이어는 해당 상품의 물량을 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전액 선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제품 운송비 및 통관비용은 A사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지인을 통해 해당 바이어를 소개 받은 A사는 의심 없이 해당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하고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필리핀 바이어는 3,000만원을 송금한 입금 영수증 및 기업의 법인등록증과 세금납부증명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A사는 기업의 법인등록증을 조회하고 실제 존재하는 법인임을 확인한 뒤 제품 운송비 300만원을 바이어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품 선적 관련하여 더 이상 필리핀 바이어 측에서 연락이 없음을 의아하게 여겨 A사측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필리핀 바이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해당 필리핀 바이어 소속 법인에 대해 문의하였다.

마닐라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바이어가 송부한 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세금납부영수증은 실제 존재하는 법인의 것이었으나 입금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운송비 300만원을 요구하며 보낸 이메일에서는 “Royal Cargo”를 통해 선적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물류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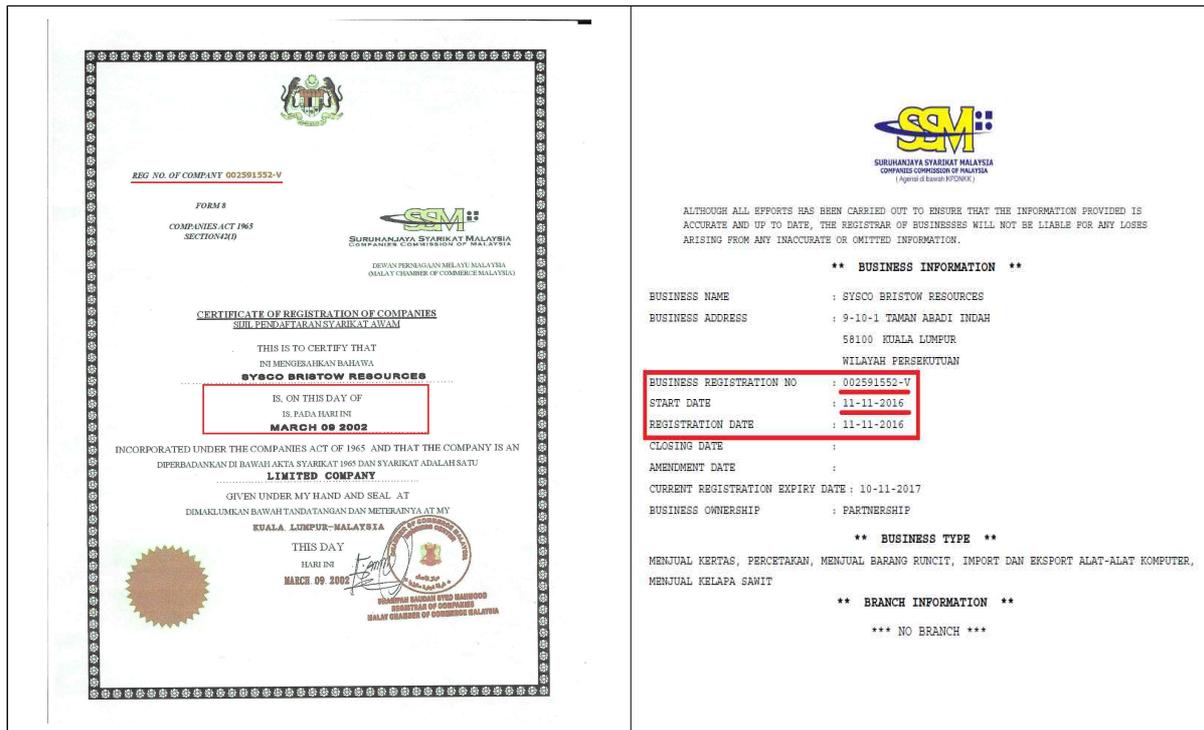
마닐라 무역관에서는 대부분의 필리핀 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소재 기업 바이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한국인의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100%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관행상 없으므로 전액 선금을 지불하는 등 지나치게 셀러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무역사기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5]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증명서는 기업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 발생지역 : 말레이시아
- 발생시기 : 2017년 8월
- 내용

한국기업 K사는 구매 담당자는 ‘SYSCO BRISTOW RESOURCES’(이하 S사) 라는 말레이시아 소재 업체로부터 강낭콩, 팜오일 등의 수입 오퍼를 받았다. S사는 인보이스와 기업등록증명서를 송부하며 선금을 입금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무역사기를 의심한 K사 담당자는 송금 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S사에 대한 수입업체 확인서비스를 요청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홈페이지(www.ssm-einfo.my)를 통해 송부 받은 서류의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위조서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동 회사는 2016년 11월 11일 설립되었다고 등록되어 있으나 서류상에는 해당 기업이 2002년 3월 9일에 등록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즉시 K사에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위조서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발급 서류>

자료원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5

수수료 · 로열티 · 로비자금 등 금품사취

1]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서부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무역사기 유형으로 각종 수수료, 로열티, 로비자금, 변호사 선임비용, 은행보증료, 공증비, 각종 활동비, 통관비용, 인증비용 등을 사취하려는 목적의 무역사기
 - 국제입찰, 원부자재 공급 등 기대 수익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요구
 - 대형거래를 미끼로 거래를 서두르며, 계약 직전에 전체 계약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수수료, 로열티, 로비자금, 뇌물 등 여러 명목으로 요구한 뒤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
 - 국제기구 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접근할 정도로 지능화
- (예방) 해당 기업 정보 조회 및 현지 계약 및 거래 관행 사전 파악
 - 수수료 및 로열티 사취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현지의 고유한 계약 및 거래 관행으로 인해 해당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한국기업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무역사기범이 말한 관행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KOTRA 무역관에 문의하여 진위여부 확인 필요
 - 현지 KOTRA 무역관 또는 현지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조달, 입찰 및 각종 프로젝트의 실재 여부를 사전확인하고 선정방식 등에 관한 조사 사전 시행
 - 해당 유형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또는 정부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기관 또는 현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당 인물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지 고위층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을 지원하거나 현지 활동을 핑계로 각종 활동비 및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의심할 것

② 대표사례

[1] 정부기관 에이전트 사칭범의 로열티 사취 시도

□ 발생지역 : 카타르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내용

실험실용 기자재를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실험 기자재 박람회(ARAB LAB 2017)에 참가해 카타르 정부기관 에이전트라는 B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B사는 A사에 카타르 ‘이슬람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s and Islamic Affairs)’의 입찰 참가를 위한 벤더등록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수출가격표 등을 요청했다.

B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종교부로부터 실험용기자재 제품에 대해 약 미화 530만 달러 규모로 발주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행정수수료 비용으로 약 10,107카타르 리얄(약 미화 2,800달러)을 72시간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참가가 무산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수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A사는 발주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과 절차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KOTRA 도하 무역관으로 진위여부 파악을 요청했고, 무역관은 이슬람 사원 및 학교를 관리하는 이슬람종교부의 업무분야와 발주품목이 상이한 점, 공문서 상 연락처가 이슬람종교부 직원이 아닌 일반 개인의 휴대전화인 점 등을 확인해 해당 입찰 건이 사기시도 사례임을 안내했고 A사는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2] 금 시세차익을 악용한 로열티 사취 사기

- 발생지역 : 탄자니아
- 발생시기 : 2016년 7월
- 피해금액 : 30,000달러
- 내용

탄자니아 현지 금 시세와 국제(한국) 금 시세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한 금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바이어 A사는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로부터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제안을 받았다. 금 수출업자는 A사를 탄자니아로 초청하며 현지 채굴 시설 및 금 감정서 등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현지 출장에서 금 감정서 및 수입대금 외 로열티 6%를 탄자니아 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허가서를 확인한 뒤 해당 로열티는 50%씩 나누어 내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탄자니아 수출업자는 국제 배송을 이유로 각종 통관 수수료, 배송료, 인증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A사는 이에 로열티 및 부대비용을 합하여 전액 송금하였다.

그러나 송금과 동시에 수출업자는 잠적하여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사는 다레살람 무역관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수출허가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으나, 해당 수출허가서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동 사건은 통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사취를 노린 전형적인 무역사기 건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금액은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스페인 바이어, 수수료만 받고 잠적

- 발생지역 : 스페인
- 발생시기 : 2015년 10월
- 피해금액 : 5,000달러
- 내용

국내기업 A사는 자신이 스페인 조달청의 공식 납품업체라고 소개하는 스페인 기업으로부터 A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약 50만 달러가량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교적 큰 물량의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샘플 요청이나 거래조건 조율 과정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스페인 기업 측에서 사안이 급하니 구매한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재촉해 수출 준비를 서둘렀다.

수출계약 직전, 스페인 기업 측에서 현지 관행 상 수출계약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며, 이는 보통 수출업체 측에서 부담하니 먼저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5천 달러를 송금해 주고 스페인으로 출장을 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이에 응해 해당 금액을 송금한 뒤 스페인에 도착했으나, 스페인 기업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 잠적하였다.

[4] 관시 문화를 악용한 중국 무역사기 사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6년 10월
- 피해금액 : 2,000달러
- 내용

2016년 10월, 국내의 한 애견용품업체인 A사는 시안의 B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시, 중국 B사는 공증을 해야 한다며 양 측에서 각각 계약 금액의 0.4%씩 부담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증처에 빠른 공증처리를 위해 선물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A사는 B사가 제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전달했고 결론적으로 동 기업은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증과 관련하여 약 한화 3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중국 B사는 공증비가 계약금액의 1.6%였다고 추가로 1,000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구심이 든 A사는 최초 계약체결 및 공증비 납부를 마친 후, KOTRA 시안 무역관에 바이어 신용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산시성 공상국 등록정보 확인 및 기업 주소지 방문 결과, B사는 사기 바이어임을 확인했다.

[5] 미사여구로 현혹시키려한 에이전트 사칭 사기꾼

- 발생지역 : 잠비아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내용

국내업체 B사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잠비아 정부 공공사업공급부 (Ministry of Works and Supply)에서 진행하고 미국 개발원조정책자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의 지원을 받는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해당 잠비아 에이전트는 B사에 프로젝트가 잠비아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 소수의 관련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라고 언급했다.

에이전트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대행 수수료 3,500달러를 요구했으며 프로젝트 계약 마감인 2017년 6월 7일 전에 신속히 잠비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기를 의심한 B사는 잠비아를 관할하는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 프로젝트 진위여부 확인 요청했다.

무역관 담당자는 잠비아 고등 법무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무역 담당자에게 해당 프로젝트를 확인한 결과, 사기 건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6

결제

1] 특징 및 대처법

- (특징) 유명기업을 내세워 국내 수출기업에 주문한 뒤 선적한 물품을 받아 결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수법
 - 경영이 악화되어 지불능력을 상실한 바이어가 현지 공무원 또는 은행원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결제를 회피하거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현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거래 당사자의 신용만 믿고 단순 인보이스, B/L, 영수증만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상대적으로 안전한 L/C거래에서도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예방) 업체의 신용정보 확인 및 대금 결제 안전장치 마련 후 계약
 - 무역보험공사의 신용정보 서비스 등으로 바이어의 신용도 사전 조사
 - 바이어의 결제 거부 또는 잠적에 대비하여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가입

2] 대표사례

[1] 선T/T 요구는 선신용조사로 대비

- 발생지역 : 태국
- 발생시기 : 2017년 7월
- 내용

국내기업 C사는 무역 중개업체로 중국 바이어로부터 태국 원부자재 공급선 정보를 받고 거래를 추진 중, 의심되는 행태를 발견했다. 태국 업체가 태국 법규에 의해 금액이 클 경우 100% L/C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35%의 선 T/T 송금을 요구한 것이다.

C사는 송금 전 KOTRA 방콕 무역관에 해당 법규의 진위 여부 문의해 왔다. 이때 중국바이어가 입수한 태국업체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송부하며 기업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기업정보 DB 상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었고, 사업자등록증도 위조문서로 판명되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상공회의소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위조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2] 현지 유력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한국인 국제 사기꾼

-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7년 8월
- 피해금액 : 40,000달러
- 내용

국내기업 T사는 가나 소재 업체 A사의 사장이라고 밝힌 한국인으로부터 가나 프로젝트 입찰을 제안 받았다. A사는 가나 정부의 유력인사와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조만간 2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계약을 진행하던 발주처 담당자가 건강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이 때 A사가 프로젝트 입찰을 가로채야 한다고 제안했다.

A사는 국내기업 T사를 가나로 초청했고 현지 금광 등을 보여주며 결제는 발주처가 해당 금광에서 채굴한 금으로 100% 선금으로 결제할 것이라 장담했다. 현지 방문으로 안심한 T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샘플로 필요하다며 40,000달러 상당의 장비를 요구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해당 장비를 가나로 보냈다.

그러나 A사는 샘플 장비를 받은 후 즉시 잠적하였고, T사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A사의 한국인 사장이 친분이 있다고 했던 현지 유력인사는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해당 금광도 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은행원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결제를 회피한 바이어

발생지역 : 방글라데시

발생시기 : 2017년

내용

국내기업 A사는 방글라데시 B사로 자갈을 수출하면서 L/C를 개설하였다. B사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자 물품을 클리어하고 수입신고서를 받았지만 은행에 제출을 하지 않고 대금지급을 지연시켰다.

방글라데시는 중앙은행이 외화허위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외화 송금을 위해서 바이어는 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서 제품을 통관시킨 후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에 세관이 날인을 하는데 이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이 LC 대금을 매입은행으로 보내는 구조이다. 바이어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은행직원과 결탁해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사는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KOTRA 방글라데시 무역관을 통해 은행과 바이어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핑계를 대며 결제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인하 등 다양한 요구를 시작했다.

7

기타

□ 주요 사례

[1] 대량 샘플을 받아 디자인을 도용한 미국 바이어

- 발생지역 : 미국
- 발생시기 : 2017년 2월
- 피해금액 : 600달러
- 내용

2017년 2월 미국 바이어 B사는 국내기업 K사의 니트 자카드 원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바이어인 COSTCO에 의상 완제품 샘플 제시를 위해 필요하다며 3가지 색상으로 각각 10 야드의 샘플을 요청했다.

이 품목의 가격이 1야드 당 2.9달러(FOB Korea)이나, 염색료와 가공비를 최소로 하여 할인된 가격인 1야드 당 2달러에 청구하는 조건으로 원단 샘플 제작에 착수했다. 실제로 10 야드 제작을 위해서는 최소 70-100 야드의 원단이 투입되어야 하고, 샘플 작업 시 늘 발생하는 불량품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0-30야드 정도의 제품이 생산된다. 이외에도, 이러한 야드지 샘플 생산을 위해서는 인건비, 운송비 등의 경비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차후 대량 주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샘플을 제작해 송부했다.

이후 K사는 샘플로 보냈던 동일 원단으로 제작된 의류가 COSTCO에서 팔리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해당 의류 및 원단은 중국의 업체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미국 바이어 B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해 COSTCO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K사는 업계 소문을 통해 K사가 보낸 원단을 미국 바이어 B사가 도용하여 중국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K사는 B사의 디자이너들에게 강력 항의를 했지만, 단순 오더 캔슬 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었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2] 기업 담당자 사칭하여 접근한 무역사기범

□ 발생지역 : 독일

□ 발생시기 : 2017년 6월

□ 내용

국내기업 B사는 2017년 6월 독일 D사로부터 식품을 대량 수입하고자 주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독일 D사 담당자가 독일어 및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점 및 현지 홈페이지가 허술한 점을 의심하여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에 기업 존재 여부 및 신뢰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무역관은 한국 B사로부터 전달 받은 A사의 연락처로 유선 연락을 시도했다. A사 담당자에 따르면 본인 회사는 작은 회사이며 음료 등을 판매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유선 연락 시 A사 담당자가 독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 점과 영어 발음이 어눌했던 점, 그리고 사무실 번호가 선불(Prepaid)카드 사용 번호였던 점, 무엇보다 회사 명칭이 식품이나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의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동일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여 사무실 번호를 찾았고 D사의 독일인 직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수입 건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당사는 D사의 해당 담당자 및 음료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언급하였다. 무역사기 건임을 확인한 무역관은 독일 D사의 담당자를 사칭한 인물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3] 불법체류자로 둔갑한 바이어

- 발생지역 : 방글라데시
- 발생시기 : 2016년 1월
- 내용

방글라데시 바이어라고 밝힌 A씨는 국내기업 C사로부터 수입을 원한다며 접근하였다. 그는 큰 금액의 L/C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대신 국내 기업의 공장을 방문을 해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은 A씨에 초청장을 발급하였고 수일 후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공항에서 A씨를 기다린 C사의 담당자는 그를 만날 수 없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국내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당일 입국했으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 거액의 계약체결을 미끼로 발생한 접대사기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6년 12월
- 피해금액 : 18,800위안
- 내용

홍콩에 본사를 둔 선전 소재기업 HK YOUNGCHANG INDUSTRIAL는 먼저 국내기업 H사에 거래희망의사를 밝히며, 50만 달러 계약서를 제시하고 샘플 검사도 없이 선미팅 후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선전기업은 미팅을 위해 H사를 선전으로 출장을 요구해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귀국 후, 해당 선전 소재 기업은 점차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의구심이 든 H사는 상기회사를 선전 공상국에 등기조회 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나왔으며, 선전지사 및 홍콩본사와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m.hazfil.com)도 확인결과, 상기 회사와 무관한 콘텐츠만 있었다. KOTRA 홍콩 무역관에서 홍콩본사 등기여부도 확인 했으나 신뢰도가 없는 회사로 확인되었다.

Ⅲ. 무역사기 대응책

□ 무역사기 예방법

○ 업체 정보 확인은 필수

- 업체의 공식사이트 정보만을 확인하는 것은 삼가야함. 공식사이트는 조작사이트이거나 허위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기업 정보 필수 확인 요소

- ① 해당 국가 사업자 등록 여부
- ②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인지 여부
- ③ 등록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받은 정보와 등록 정보 일치 여부
- ④ 재무상태 및 신뢰도 확인

- KOTRA 해외수입업체 확인 무료서비스 적극 활용

*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사업안내-수출마케팅-해외시장조사-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신청하기

- 제공 서비스 :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 무역보험공사, 국내외 민간 신용평가기관 등 신용조사 의뢰 가능

*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http://www.ksure.or.kr>)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제공 서비스

- 수출보험부보를 위한 등급책정을 위해 기 작성된 요약보고서 유료 제공
- 신규 국외기업 유료 조사 신청 접수

-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업체 정보를 확인

일부 업체는 업체명 및 담당자 명을 구글에서 단순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타 무역사기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구글에서 주소로 검색하는 경우 구글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를 볼 수 있는 거리뷰(Street View)를 활용하여 실제 주택가인지 사무실인지 확인해보고 실제 실존업체 주소인지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구글 검색만으로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건이 다수 있었으나, 허위, 과장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를 도용한 경우도 있어 2차 확인 필수

- 각국 상공회의소 등 유·무료 업체 정보 확인 웹사이트 검색
 - * 현지 웹사이트 정보가 영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국내에서 현지어 가능한 직원 및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각국 KOTRA 무역관 문의
- 이메일 교신 외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이메일 서명의 이름, 직책, 회사명, 주소 등 세부정보의 알파벳 철자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해당서명에 적힌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 정보의 전화번호를 대조해 해당 전화번호로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 일부 무역사기 건은 정부기관에 정식 등록을 한 업체를 이용하여 정식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경우도 다수이므로 업체 존재 유무가 확인되었더라도 등록된지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함

□ 무역사기 의심 사건 발생 시 대처법

- 가장 먼저 국내 송금 은행을 통해 현지 은행에 은행계좌 지급정지 요청
 - 현지 은행계좌 지급정지는 자금을 송금한 한국 측 은행의 공문을 통해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송금 은행에 먼저 확인
 - 현지법 및 각 은행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국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현지 및 결제은행 소재지 등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신고
 - 바이어 또는 수출기업의 국적, 거래지역, 결제 은행에 따라 제 3국이 관여될 수 있으므로 현지뿐만 아니라 제 3국에도 신고접수 고려하며 국내 경찰에서도 공조수사 진행
 - 신고 시 인보이스 사본, 사기꾼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기록, 입금관련 증빙서류, 선적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 확보하여 경찰신고 시 지참
-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피해금액을 분담 또는 보상받기위한 민사 소송 진행
 - 무역관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송절차 문의
 -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각국의 소송비용 및 법규관련 문의요망
 -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해당 무역사기 건에 대하여 타 피해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무역사기 방지 5계명 >

1. 기본정보 확인을 넘어가지 마라

- 무역사기의 대부분은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정보 확인만으로 예방된다.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상공회의소, 각국 유료 업체정보 DB등을 적극 활용하라

2. 평소와 다르면 2중 3중으로 확인하라

- 계좌번호 변경 등 바이어가 평소와 다른 연락을 해 오면 반드시 유선전화, 팩스, 영상회의 등 이메일 외 수단으로 확인하라

3.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 첫 거래를 하게 된 바이어나 수출업체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해 온다면 무역사기를 의심하라

4. 바이어의 국적으로 신뢰도를 판단하지 마라

- 선진국에서 온 오퍼라고 해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기업을 가장한 제3국인의 무역사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국가와 관계없이 세계전역에서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5. 어렵고 급할수록 무역사기에 주의하라

- 무역사기는 내가 어려울 때를 노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7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 시대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	2017.1
17-002	2017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1
17-003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 일정	2017.1
17-004	호주 화장품시장 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
17-005	트럼프 취임사에 대한 주요국 반응조사	2017.1
17-006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2
17-007	미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 조사	2017.2
17-008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 여건 분석	2017.2
17-009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17.3
17-010	2017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3
17-011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2017.3
17-012	중동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3	CIS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4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2017.3
17-015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2017.4
17-016	유럽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4
17-017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4
17-018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 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2017.4
17-019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2017.5
17-020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2017.5
17-021	인도 자동차 & 부품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5
17-022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6
17-023	중남미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6
17-024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017.6
17-025	주요국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2017.6
17-026	2017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7
17-027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7.7
17-028	러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7

17-029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7
17-030	일본 시니어 시장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017.7
17-031	주요국의 대미 경협 활동 분석에 따른 의제 제안과 시사점	2017.8
17-032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방식 제언	2017.8
17-033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2017.9
17-034	2017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9
17-035	이란 민영화 현황과 시사점	2017.10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2017.1
17-00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3
17-003	新통상시대 중남미 주요국 다각화 정책과 시사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과 기회요인	2017.3
17-004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5	저성장 시대 일본기업의 성장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6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	2017.5
17-007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2017.6
17-008	일본 서비스기업의 對아세안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6
17-009	메르코수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요국 진출 전략과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2017.7
17-010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2017.8
17-011	유라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현황과 경기개선 요인	2017.9

□ KOTRA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사례집	2017.1
17-002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1
17-003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2017.1
17-004	2016 외국인투자유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7.2
17-005	2017 해외진출종합핸드북	2017.2
17-006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3
17-007	2016 서비스업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3
17-008	2017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2017.3

17-009	이란 진출 종합가이드북 2017	2017.3
17-010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6	2017.3
17-011	2016 IP-DESK 백서	2017.3
17-012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투자유치 대응전략	2017.3
17-013	2016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7.3
17-016	코트라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	2017.4
17-017	정상외교경제활용 백서 2013-2016	2017.4
17-018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chinery Parts	2017.4
17-019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mobile Parts	2017.4
17-020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2017.4
17-021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2017.4
17-022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armaceuticals	2017.4
17-023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and Beverage	2017.4
17-024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al Device	2017.4
17-025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2017.4
17-026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CT	2017.4
17-027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s	2017.4
17-028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Renewable Energy	2017.4
17-029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etrochemical	2017.4
17-030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ine Chemicals	2017.4
17-031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and Distribution	2017.4
17-032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2017.4
17-033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2017.4
17-034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	2017.4
17-035	SEOUL FOOD 2017 디렉토리	2017.4
17-036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투자유치 방안	2017.4
17-037	권역별·분야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	2017.5
17-038	수출바우처사업 활용가이드	2017.5
17-039	Invest KOREA 2016년도 연차보고서	2017.6
17-040	2017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집	2017.6
17-041	SEOUL FOOD 2017 결과보고서	2017.6
17-042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인권경영 보고서	2017.6
17-043	2016 KOTRA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2017.6

17-044	전력기자재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5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6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7	패션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8	화장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9	교육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0	캐릭터 라이선싱 산업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 제1편 중국	2017.7
17-051	AI/IoT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2	항공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3	모바일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4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5	지식재산권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6	물류서비스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7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2017.7
17-058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 Parts	2017.7
17-059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Biopharmaceutical	2017.7
17-060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Cultural Contents	2017.7
17-061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2017.7
17-062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ashion & Beauty	2017.7
17-063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 Beverage	2017.7
17-064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2017.7
17-065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2017.7
17-066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 Renewable Energy	2017.7
17-067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Offshore Plant	2017.7
17-068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arts and Materials	2017.7
17-069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2017.7
17-070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2017.7
17-071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	2017.7
17-072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pecialty Chemicals	2017.7
17-073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2017.7
17-074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및 개발동향	2017.7
17-075	외국인투자가이드 2017	2017.7
17-076	Doing Business in Korea 2017	2017.7

17-07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17.7
17-078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7 Edition)	2017.8
17-079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7.8
17-080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6	2017.8
17-081	2017 外國人投資ガイド	2017.9
17-082	2017 外商投資指南	2017.9
17-083	수출바우처사업 활용가이드 (개정판)	2017.9
17-084	글로벌 화장품 산업 트렌드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17.9
17-085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 화장품편	2017.10
17-086	주요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조사	2017.10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201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7.1
17-002	2017 中美시장 진출확대 설명회	2017.1
17-003	이란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1
17-004	쿠바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2
17-005	(매칭페어) 제1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2
17-006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7차 수요포럼 : 북미 인프라 시장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7.2
17-007	2017 유엔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17)	2017.2
17-008	2017 아세안 시장 진출 설명회	2017.2
17-009	2017 GBMP 보건의료 프로젝트 설명회 (Global Healthcare Project Plaza 2017)	2017.3
17-010	GBMP 2017 글로벌 공공조달 의료기기 시장진출 설명회	2017.3
17-011	케냐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2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멕시코 진출전략 세미나	2017.3
17-013	러시아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4	2017 세계 유통시장 진출 쇼케이스 전략설명회	2017.3
17-015	2017 유라시아 진출 세미나	2017.4
17-016	2017 국내복귀기업대상 경영지원세미나	2017.4
17-017	Global Animation Market Trend and Strategy	2017.4
17-018	우즈베키스탄 KSP 섬유산업 투자진출 세미나	2017.4
17-019	Global Project Plaza 2017	2017.4

17-020	중국시장진출의 초석, 홍콩 활용방안 (Hong Kong: Your Gateway to China)	2017.4
17-021	Latin Business Week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2017.5
17-022	중국 소비재 수출환경 변화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17.6
17-023	우리 수출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KOTRA 창립 55주년 기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2017.6
17-024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8차 수요포럼 : 해외 노후 인프라 개선·해체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7
17-025	2016/17년 산업·무역·투자 KSP 결과공유 세미나	2017.7
17-026	(매칭페어) 제2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7
17-027	중국 동북 바이어, 이런 제품 찾는다	2017.8
17-028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2017.9
17-029	Novo Nordisk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 : Global Alliance Project with Novo Nordisk	2017.9
17-030	2017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2017.9

□ KOCHI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년 대중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2017.1
17-002	2017 차이나 비즈니스 트렌드	2017.2
17-003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2017.3
17-004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17.4
17-005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사례	2017.5
17-006	2017 홍콩 신정부 출범으로 보는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2017.5
17-007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과 시사점	2017.5
17-008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2017.6
17-009	2017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조사	2017.6
17-010	KOTRA 중국지역 마케터 100인에 물었다	2017.6
17-011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7.7
17-012	한중 경제관계 증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2017.8

□ GIP (Global Issue Paper)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7-001	미국의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및 향후전망	2017.1
17-002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7.2
17-003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중·일 무역·투자 장벽 분석 및 시사점	2017.4
17-004	美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 자동차 업계 동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7.6
17-005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영향 :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2017.9

작 성 자

- 정보전략팀 정선영 외 49개 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36

무역사기 유형별 대표사례 및 대응책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3460-0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정보전략팀 (02-3460-3304)
I S B N | 979-11-6097-385-3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무역사기 유형별
대표사례 및 대응책**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